

#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5

## 해방직후 창립된 高麗文化社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신 분  
趙權順씨

70· 국제투자자문주식회사 회장

일제의 사슬을 벗어난 지 불과 한달여만인 1945년 10월 1일 창립된 고려문화사는 해방직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행부수 10만의 월간지 「民聲」을 비롯한 일련의 잡지 및 신문, 단행본 출판으로 우리 출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고려문화사는 폭격과 대표 柳明韓씨의 죽음이 겹쳐 그만 문을 닫고 마는데, 그 꺾지만 번성했던 고려문화사에 얽힌 얘기를 당시 경리 담당자로 일했던 조권순씨에게 듣는다. 대담은 본지의 이경훈 편집위원이 맡았다.

— 해방직후인 1945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새롭게 출판등록을 한 출판사의 수가 45개사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高麗文化社의 경우 대표적인 신생출판사로서 우리 출판계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 당시의 경리담당자였던 조선생님을 모시고 高麗文化社의 성립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45년 10월 1일이 高麗文化社의 창립일로 되어 있는데, 해방이 된 지 불과 한달여만에 대단위의 규모를 지닌 출판사가 설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일제의 적산시설 이용해 창업

**조권순** — 저는 창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당시의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입사한 뒤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일제 때 敵産인 ‘판본’이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돌아가니까 柳韓洋行의 사장인 柳明韓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운영하게 되었죠. 당시의 발족취지는 기존 인쇄시설을 이용해서 출판업에 투자, 국민의 정서와 민족 정신을 되찾아주는 의도였어요. 전신인 일본인의 인쇄소에 출판부를 신설해서 高麗文化社라는 출판·인쇄 겸업의 사업체를 만든 겁니다. 사실 高麗文化社의 印刷部는 朝鮮書籍印刷公社, 朝鮮印刷會社와 함께 설비와 기술면에서 우열을 다투던 수준 높은 인쇄소여서, 출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웠던 시절인 당시의 회사운

영을 순조롭게 만들었어요. 기존의 인쇄시설을 활용해서 얻은 이윤을 양서를 출판하는 일에 투자한다는 운영방침을 세웠던 겁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柳明韓씨는 중국 등지에서 해외선진문물을 많이 접했던 분이어서 출판업을 통한 국민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것 같습니다. 柳明韓씨가 출자자로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면, 부이사장인 李康濂씨는 실무전반에 걸친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편집국장인 金昌集씨, 편집국의 林炳哲씨 등이 이사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 그렇군요. 그럼 조선생님이 高麗文化社에 입사하시게 된 시기와 동기를 설명해 주시죠.  
**조권순** — 일제말기에 저는 만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돌아온 것이 45년 12월 27일의 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신탁통치반대 데모가 한창이어서,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타국땅 만주에서 돌아온 저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그때 柳韓洋行의 설립자인 柳一韓씨의 동생 柳明韓씨를 만나서, 저간의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高麗文化社를 소개하더군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글도,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국민의 아픔을 통감하던 저는 출판업이 전망도 밝고 국민들의 아픔도 씻어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입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46년 2월 1일부로 高麗文化社로 전속되어 갔던 겁니다.

— 柳韓洋行의 사장인 柳明韓씨가 高麗文化社를 완전히 인수한 겁니까.

**조권순** — 인수했다기보다는 운영권만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서 등은 모두 柳明韓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인 운영은 李康濂씨가 맡았어요.

—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李康濂씨는 어떤분이었고, 柳韓洋行의 설립자인 柳一韓씨는 당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조권순** — 확실치는 않지만 부이사장인 李康濂씨는 일제때부터 인쇄소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쫓겨가니까 종업원들의 대표로 나서서 출자자인 柳明韓씨와 함께 高麗文化社를 이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國民音樂會라는 업체를 경영했는데, 오히려 高麗文化社보다 더 번창했을 거예요. 물론 國民音樂會의 모든 인쇄물은 高麗文化社에서 했어요. 柳一韓씨는 대동아전쟁이 시작되면서 친미파로 몰려 일본에 의해

“고려문화사는 주식회사 체제를 택하지 않고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제로 운영됐었습니다. 아마도 종업원 대표와 출자자의 공동운동을 돕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대 출첵회장을 역임했던 김창집씨, 경리책임자였던 황석하씨, 그리고 이강림, 임병철씨 등이 당시의 이사진을 구성했던 분들이죠.”



조권순씨.

추방당했습니다. 동생인 柳明韓씨가 사업체를 맡아서 사세를 국내로 확장시켰죠.

### 문인·작가 등 쟁쟁한 편집진

— 高麗文化社의 위치가 중구 태평로 2가 1번지였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디쯤 되고, 건물이나 사무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조권순** — 인쇄부인 공장은 시청앞 광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프라자호텔 건너편이 되겠군요. 제 기억으로는 공장부지가 800~1000평쯤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은 3, 4층 정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종업원은 2백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약 8백명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高麗文化社는 특이하게도 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사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조권순** — 주식회사의 체제를 택하지 않고,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제로 운영한 것은 종업원 대표와 출자자의 공동운동을 돕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사진은 출판계에 다년간 몸담은 경력을 가진 金昌集씨와 경리분야의 책임자였던 黃碩夏씨, 그리고 李康濂씨, 林炳哲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金昌集씨는 기독교관련 잡지인 시조사의 편집책임과 사장을 역임하신 분이었고, 黃碩夏씨는 柳韓洋行에서 파견된 분으로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으로 영어에 능했고, 경리분야에 밝아 경리책

임자로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사로 들어온 金文泰씨는 서북청년회에서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편집진의 林炳哲씨는 柳韓洋行의 학술부에 계시던 분인데, 高麗文化社 편집부로 오셨다가 다시 48년에 東亞日報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같은 편집부의 金永壽씨도 학술부 출신이었는데, 이외에도 朴啓周 蔡廷根 朴榮濬 崔永秀씨 등 쟁쟁한 인재들이 高麗文化社의 편집부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 월간잡지 「民聲」은 10만부씩 발행

— 고려문화사가 발행했던 「民聲」은 당시 최고의 부수를 기록한 잡지라는데, 「어린이신문」과 함께 얼마만큼 발행했으며, 제작·판매 과정 등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조권순** — 처음엔 주간으로 발행하다가 월간으로 발행한 「民聲」은 약 10만부 정도 인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간 「어린이신문」 역시 10만부를 발행했는데, 10만부 돌파 기념식을 했습니다. 월간지로서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民聲」은 金永壽씨와 蔡廷根씨 여기자 白仁淑씨가 함께 만들었고, 전국의 특약점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주간 「어린이신문」은 尹石重씨 등이 편집했고, 유가보다는 무가지로 전국 국민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죠. 특히 「民聲」은 「라이프」지와 같은 판형과 표지장정으로 당시의 월간지들과는 색다른 점이 돋보여서,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林炳哲씨 등 영어에 능한 편집자와 기획의

작품구상

# '여성다움'의 덧 그 제거과정

「떠나가는 배」

김향숙

소설가

도시빈민가정 출신의 한 여성이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노릇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여 '여성다움의 덧'에서 빠져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연작장편으로 그려보려고 한다.



고려문화사의 편집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혜순, 이용악(시인), 최재익, 임호권(시인), 박영준(소설가), 박소리, 이상로(시인), 이순재(화가)씨.

특이성으로 성공한 셈이군요. 당시의 용지사정은 어땠습니까.

**조권순** — 광복당시 용지사정은 갱지가 每日新報社, 京城日報社 등에 1천여연 정도가 남아 있었고, 몇 군데의 인쇄소에 조금 있었지만, 용지의 생산능력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高麗文化社에는 일본사람들이 버리고 간 재고가 있어 1년쯤 견딜 수 있었어요. — 내부 인쇄물 말고도 인쇄를 했나요.

**조권순** — 내부 인쇄물은 「民聲」과 「어린이신문」 그리고 단행본 몇 종뿐이어서, 외부의 인쇄의뢰를 받아 작업을 했었죠. 인쇄시설이 워낙 대규모여서 벽지인쇄도 했을 정도니까요. 일제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벽지의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신문지로 도배를 하거나, 갱지를 사용했던 거죠. 해방이 되면서 2도 3도의 인쇄된 벽지가 비로소 등장했는데, 당시 수백 연속 찍어냈습니다.

###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결국 문 닫아

— 高麗文化社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조권순** — 저는 46년 2월 1일 입사해서 49년 봄인 4월경에 결혼과 함께 高麗文化社를 떠났습니다. 柳明韓씨가 부산에 있는 제약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책임자로 저더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지만, 개척정신을 앞세워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후 高麗文化社가 없어진 것은 1년 뒤인 50년 6·25전쟁에 의해서였지요. 해방후 좌익사상이 농후했던 곳이 출판노조였는데, 들리는 말로는 인민군이 들어오자 좌익 인쇄공들이 高麗文化社에서

화폐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폭격지점이 되었고, 전쟁중에 심한 폭격으로 흔적도 없이 파괴돼 현재의 시청앞 광장이 된 겁니다. 이사장인 柳明韓씨는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에서 살았는데, 노모의 건강을 위해 풍광이 수려한 다대포로 이사를 했어요. 다대포에서 부산까지 연락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던 柳明韓씨는 수복 직후 다대포조난사건을 당해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결국 서울에 있던 高麗文化社는 폭격으로 재가 되고, 이사장이셨던 출자자는 돌아가셨으니 전쟁와중에 호지부지돼, 우리 출판계의 역사속에만 존재하는 출판사가 된 겁니다.

— 조선생님은 高麗文化社의 이사를 하시고, 초대 출현회장을 지내신 金昌集선생의 사위분이신데 그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조권순** —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군요. 몇해 전 돌아가신 장모님을 합장해 드렸는데, 작년에 비석을 세우려다가 여의치 않아 어제사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 조선생님은 최고경영인상도 수상하셨고, 유한양행 사장, 광명인쇄소 사장을 역임하시는 등 실업인으로서 한평생을 사셨는데, 출판경영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권순** —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판으로 큰돈을 벌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출판인 스스로도 국민정서와 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리·최태원 기자

내일을 전망하기 힘든 시대라는 말을 어디서나 듣게 된다. 어쩌면 모든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거대한 수렁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수렁들이 수렁으로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징검다리 노릇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영원한 족쇄인 모순의 법칙이 사회의 흐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당대의 혼돈의 수렁이 결국 다음 시대의 여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아직 이 시대에 남아 있는 뿌리깊은 고정관념 중의 하나인 여성에 대한 편견과 그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실한 허위의식이 오래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도 된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점들을 시간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주리라곤 여기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문제점의 핵이 무엇인가 알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껏 변하지 않는 여러가지 불평등한 제도적 틀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연 여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제2의 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지게 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여성고유의 특성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만 같다.

현신에 대한 끝없는 열정, 무한한 희생심때문에 여성은 언제나 남성의 영원한 최후의 안식처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다움과 모성은 긴밀히 얽혀 거의 신적인 경지로 추앙받게 되면서 인간다운 욕구의 탐색이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적 과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가부장제 존속을 위해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투사해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라는 생각이다. 남성들이 만들어 낸 것들 중에서 가장 절묘한 형태를 한.

연작 장편소설 형태로 쓰려고 하는 이 작품에서 도시빈민가정 출신의 맏딸인 한 여성이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노릇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여 차츰 철저한 희생양 역할을 강요하는 여성다움의 덧에서 빠져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여성고유의 특성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불화의 드러냄이 목적이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저마다 싫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참게 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여성 또한 남성과 다르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할 때 그때 참다운 사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여성 고유의 미덕, 여성다움이 우리들 인간 모두의 지향점이기는 할 망정 여성이 본래적으로 타고 난 특질이 아님을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